

倒倉法の沿革과 현대적 응용

경희덕소애한의원 원장¹

정지훈¹ · 한봉재¹ **

The Reaserch of Dochangbup

Jung Ji Hun¹ · Han Bong Jae¹ *

¹Kyunghee Duksoae Korean Medicine Clinic

Objective : “Dochangbup” is one of the therapies that remove pathogenic qi[邪氣] from the Emetic Method in the Miscellaneous Disorders part of *Dongeuibogam*東醫寶鑑. It is, in particular, the method of treatment that removes phlegm[痰], the cause of various disorders.

Method : Application of “Dochangbup” had a long history in Korea as well. The meaning and application of “Dochangbup” are mentioned in various texts from early Chosun dynasty to the post liberation.

Result : In China, there are a lot of medical texts by physicians throughout Ming and Qing Dynasty, with *GeZhiYuLun*格致餘論 at the top of the list, dealing with the meaning and applicable scope of “Dochang” method and pharmacy of “Hacheongo震天膏”. Most of the physicians are affiliated with Dan Xi School, regarding ZhudanXi朱丹溪 as a suzerain.

In 『Dongeuibogam』, it is mentioned that “Dochangbup” can treat various disorders caused by phlegm. Though, when there is a possibility of harming original qi[元氣] during the treatment or grave deficiency in patients, it is requested to consider tonifying while purging.

Conclusion : “Dochangbup” can be applied not only to the disorders mentioned in classical medical texts, like heart pain[心痛], leg disease[脚氣], urine turbidity[小便濁], involuntary discharge of semen[遺精], cough[咳嗽], blood spitting[咯血], but also to metabolic syndrome such as obesity, hypertention and diabetes, commonly found in the modern era.

Key Words : Dochangbup, Dam[phlegm], *Dongeuibogam*, detoxification

I. 서 론

한의학에서 질병의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매우 다양한데, 그 중에서 한의학적 특징을 가장 잘

* 교신저자 : 한봉재.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487-1
아이비타워8층 경희덕소애한의원 원장
E-mail : baramhan@naver.com Tel : 010 9990 7287

접수일(2013년 11월24일), 수정일(2014년 02월16일),
게재확정일(2014년 02월17일).

드러내는 것은 바로 ‘痰’이라고 할 수 있다. 『東醫寶鑑』에는 “十病九痰”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담이 많은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다.

담이 원인이 되어 일으키는 많은 질병 중 최근의 의학계에서 관심사로 대두되는 질환 중의 하나가 바로 만성 대사성 질환이다. 비만, 고혈압, 당뇨 등으로 대표되는 이러한 질환들은 서로가 다른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하면서 연관된 많은 질병을 일으킨다.

대표적인 성인병이기도 한 만성 대사성 질환을 치료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최근에는 그 원인물질인 담을 치료하는 방법이 주목을 받고 있다. 담을 치료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汗吐下三法으로 대표되는 攻邪法이다. 한토하삼법 중 토법에 해당하는 ‘倒倉法’이라는 치법은 담을 치료하는 좋은 방법으로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의가들에 의해 시행되었고 다양한 의서에서 언급이 되고 있다.

도창이라는 말은 “창고에 있는 묵은 것과 썩은 것들을 가려서 버린다.”¹⁾는 뜻으로 『동의보감』에서는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의 ‘창’은 인체 내의 비, 위, 소장, 대장 등의 소화기관을 의미한다. 도창법은 소화기관에 쌓여있는 노폐물들을 제거함으로써 온갖 질병을 낫게 하는 치료법이다.

담음에 대하여 몇몇 연구자의 연구가 있었다. 질병의 원인으로서는 담음에 관한 연구로는 소진백의 연구²⁾가 있고, 담음의 치료법으로서 토법에 관한 연구는 김의태의 연구³⁾가 있었다. 그런데, 이들 연구는 도창법의 대상인 담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로 담이 생겨나는 원인과 치법에 대하여는 상세하게 밝히고 있으나, 구체적 치료법 중의 하나인 도창법에 대한 상고는 부족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도창법의 기원, 제반 의서에

서의 활용방법, 질병의 치험례 등을 살펴보고 도창법의 유래에 대해 고찰하고, 도창법의 임상적 의의 및 현대적 응용에 관한 부분까지도 고찰하여 도창법의 의미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또한 도창법을 이용한 임상례를 제시하여 고의서에 나와 있는 치법의 현대적 응용의 모델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 본 론

1. 담의 치료법으로서의 토법

도창법에 대한 유래를 고찰하기에 앞서 담을 치료하는 방법 중 하나인 토법에 대한 고찰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동의보감』에서는 치법 중 토법의 범주에 도창법을 분류하여 놓고 있기 때문이다. 토법의 의미와 유래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담을 치료하는 방법 중의 하나인 토법은 한의학의 전통적인 치료법으로 八法 중의 하나이다. 催吐藥이나 기타 구토를 일으키는 물리적 자극-새의 깃털로 인후부를 자극하여 토해 내는 방법-으로 停痰이나 宿食 또는 독물을 뱉어 내게 하는 방법이다. 인후부에 痰涎이 막혀 호흡 장애가 있을 때, 胃脘部에 먹은 것이 막혀 배가 불러 오르면서 아플 때, 독물을 먹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위 속에 있을 때 등과 같은 急證에 사용된다. 실증에는 오이꼭지, 藜蘆, 膽礬 등을, 허증에는 參蘆飲을 처방약으로 사용한다. 토법은 일반적으로 임부에게는 사용하지서는 안 되며 허약자에게는 조심해서 써야 한다⁴⁾.

토법은 유래는 꽤 오래되었다. 『內經』에는 “其高者因而越之”라는 방법이 있고, 『傷寒論』에는 瓜蒂散으로 傷寒의 邪氣가 胸中에 맺힌 것을 토하게 하는 방법이 있었다. 그 후에 『千金方·風論』의 吐方, 『本事方』의 稀涎散, 『普濟方』의 吐風散, 『總錄方』의 常山散 등은 모두 催吐시키는 처방들이다⁵⁾.

또한, 토법은 금원사대가 중의 한사람인 張從正에 그의 저술 『儒門事親·汗下吐三法該盡治病證』에

1) “腸胃爲市 無物不有 而穀爲最多 故謂之倉也. 倒者 傾去舊積而滌濯 使之潔淨也.” (許浚. 東醫寶鑑. 서울. 남산당. 1991. p.354.)

2) 소진백, 『동의보감』에 보이는 단계담음론의 의과학적 고찰.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3) 김의태, 『東醫寶鑑』에 인용된 張從正의 醫論 研究. 韓國醫史學會誌. 14(1). 2001.

4) 경희대학교 출판국. 동양의학대사전 10권. p.361.

5) 陳大舜의 2인 編著. 맹용제 외 9인 번역. 各家學說. 서울. 대성문화사. 2001. p.213.

서 상세하게 서술하였다. 그런데, 장중정은 토법이 꼭 구토시키는 것에 국한 되지 않고 인체의 유무형의 사기를 몰아낼 수 있는 방법이라면 모두 해당된다고 그 의미범주를 넓혀 놓았다⁶⁾. 장중정의 이와 같은 의미범주의 확대는 토법의 한 종류인 도창법을 사용함에 있어서 주된 제거 대상인 담을 몰아내는 데 있어서 반드시 구토시키는 방법이 아니더라도 가능함을 제시하여주는 의미있는 서술이라 할 수 있다.

2. 중국의서에 언급된 도창법

중국의서 중 도창법을 언급한 비교적 이른 시기의 저작은 『格致餘論』이다. 『격치여론』에서 먼저 언급을 한 이래로 명나라와 청나라를 거치면서 많은 의가들이 도창법에 대한 의의와 활용범위 등을 언급하였다. 이들 의가들은 주진형을 종주로 삼는 ‘단계학파’에 속하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격치여론』의 倒倉論

『격치여론』에는 모두 41편의 논문이 실려 있는데, 그 중의 하나인 ‘도창론’에서 도창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하고 있다. 이 글에서 주단계는 “經에 이르기를 ‘腸胃는 市場과 같다.’하였는데 없는 물건이 없으나 곡식이 가장 많은 까닭으로 倉이라 부르니 곡식을 저장하는 장소와 같다. 倒라는 것은 쌓인 옛 物品들을 쏟아버리고 씻어주어 깨끗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胃는 中央에 거처하고 土에 屬하여 만물을 受納하기를 좋아하나 스스로 運化하지는 못한다. 사람이 食生活에 있어 입에 맞는 음식을 만나면 어찌 過食하여 損傷되는 바가 없겠는가? 또한 七情과 五味에 치우치니 어찌 沖和之德을 傷하게 하지 않겠는가? 결국 남은 糟粕과 停痰瘀血이 서로 뒤엎히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鬱結되어 積聚를 형성하게 되는데 심한 경우는 桃核 덩어리만큼 크고 奇異하게 생긴 蟲같은 모양이 되어 中宮이 더럽혀지고 土德이 不和하게 된다. 병의 뿌리가 속에 있으면 病形은 밖

으로 發하여 癱瘓, 勞瘵, 鼓脹, 癩疾 등과 여러 이름을 알 수 없는 奇病이 된다. 先人들이 萬病丸, 溫白丸 등의 處方을 만들어 攻補法을 겸하고 寒熱藥을 병용하여 病情에 맞도록 정교하게 하였으나 倒倉法만큼 민첩하지는 못할 것이다. …… 중략 …… 積聚가 오래되면 形質을 갖추어 腸胃의 攪拂攪拂하게 구부러진 곳에 머물러 등지를 쳐서, 氣血과 津液의 循環을 저지하고 熏蒸燻灼시켜 積聚症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하니 만일 刮腸刮骨 할 수 있는 神妙한 術法이 아니라면 누가 능히 그 積聚를 없앨 수 있으며, 또한 어찌 微細分量의 丸散藥으로써 그 두터운 積聚의 울타리를 두루 무너뜨릴 수 있겠는가? 肉液이 散溢되는 과정을 좀 더 상세히 말하자면 腸胃가 이를 받기를 평상시의 양보다 倍로 받기에 腫脹된 느낌을 받게 된다. 腸胃의 攪拂攪拂하게 구부러진 곳은 이전과는 달리 肉液이 充滿히 流行하여 마치 홍수가 범람된 것처럼 된다. 그리하여 腐敗된 浮遊物과 찌꺼기를 모두 밀고 씻어 내려가 停留되지 못하게 한다. 肌表에 있는 것은 吐法으로 汗出하게 되고 淸道에 있는 것은 吐法으로 涌出하게 되며 濁道에 있는 것은 泄下로 제거되어 모든 癡滯가 한꺼번에 말끔히 씻겨 내려가게 된다. 牛肉은 重厚하고 和順한 性으로 메마름을 潤澤하게하고 虛損을 補益하는 功效가 있으니 어찌 精神이 곧 爽快해지지 않겠는가? 이것은 바로 周나라 武王이 商나라를 克伐한 후에 財物과 糧食을 베풀어 殷나라 百姓들의 仰望을 救恤하는 뜻과 같은 것이다. 이 倒倉法은 西域으로부터 전해온 것인데 사람이 中年期를 넘어서 한, 두 번 정도 시행해 보면 疾病을 물리치고 長壽함에 조그마한 보탬이 될 것이다.”⁷⁾라고 하였다. 주

7) “經曰 腸胃爲市 以其無物不有而穀爲最多 故謂之倉 若積穀之室也. 倒者 傾去積蓄而滌濯 使之潔淨也. 胃居中屬土 喜容受而不能自運者也. 人之飲食 遇適口之物 寧無過量而傷積之乎. 七情之偏 五味之厚 寧無傷於沖和之德乎. 糟粕之餘 停痰瘀血 互相糾纏 日積月深 鬱結成聚 甚者 如核桃之穰 諸般奇形之蟲 中宮不淸矣 土德不和矣. 誠於中 形於外 發爲癱瘓 爲勞瘵 爲鼓脹 爲癩疾 爲無名奇病. 先哲 製爲萬病丸 溫白丸 等劑 攻補兼施 寒熱並用 期中病情 非不工巧 然不若倒倉之爲便捷也. …… 中略 …… 積聚久則 形質成 依附腸胃 回薄曲折處 以爲栖泊之窠臼 阻碍津液氣血 熏蒸燻灼成病. 自非刮腸刮骨之神妙 孰能去之 又豈合勺銖兩之丸散 所能窺犯其藩墻戶牖乎. 竊詳肉液之散溢 腸胃受之 其厚

6) “예를 들면, 引涎, 瀉涎, 嘔氣, 追迫 등 모든 위로 행하는 것들은 다 토법이다.”라고 하였다.

단계는 食生活의 무절제와 七情의 치우침으로 인하여 積滯가 발생하여 癱瘓, 鼓脹 등의 疾病이 생겨남을 설명하고, 그 치료법으로 倒倉法이 가장 빠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倒倉法에 쓰이는 약물의 造製法, 服藥法, 禁忌 등을 제시하고, 腸胃에 積聚가 형성되는 기전과 倒倉法으로 腸胃의 오래된 노폐물이 제거되는 기전을 밝히고 있다.

2) 「丹溪心法」의 論倒倉法

주진형의 또 다른 저작인 『단계심법』에도 도창법에 대한 논술이 있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는 “도창법으로 癱瘓, 勞瘵, 蟲病, 癩病 등을 치료할 수 있다. 옛것을 몰아내고 새로운 것을 가져와 허한 것을 보태고 넘치는 것을 덜어내며, 토하게도 하고 설사시키기도 한다. …… 중략 …… 대개 중간에 약을 7-8종지 정도 마셨을 때, 약 기운이 經絡과 뼈마디로 퍼지면서 오래된 찌꺼기를 찾아 몰아내는데, 이 때 정기와 사기가 싸우게 된다. 그러면 몹시 답답하면서 아픈 것 같기도 하고 아프지 않은 것 같기도 한 증상이 나타난다. 환자는 이것을 싫어하지만 오히려 다 좋은 징조이다. 사기가 정기를 이기지 못하기에 붙잡아 두는 것이므로 모름지기 편안하게 참고 있으면 된다. 또한 토할 것 같으면서도 토하지 않고 설사할 것 같으면서도 설사하지 않는 증상이 번갈아 나타날 수 있다. 이것도 모두 좋은 징조라고 받아들이고 조용한 곳에서 안정하고 있으면 된다. 이런 증상은 한나절이 지나도록 계속된다. 이런 것을 먼저 설명해주어 마음속에 의구심이 없게 해주지 않으면 그런 증상이 나타날 때 당황하게 된다. 그러므로 꼭 먼저 알려주어야 한다. 이 법을 쓰기 한 달 전부터 부인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며 이 방법을 쓴 다음에도 반 년 동안은 부

인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5년 동안 쇠고기를 먹지 말아야 한다. 만약 성질이 급하고 여색을 좋아하여 금기할 것을 지키지 못할 사람은 이 방법을 쓰지 말아야 한다.”⁸⁾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의 설명은 임상에서 자주 겪는 상황이다. 도창법을 행할 때 어려운 문제가 바로 의사와 환자가 의지를 가지고 치료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단계심법』에서는 ‘論倒倉法’이라는 논술을 통하여 도창법을 행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설명하고, “도창법을 행할 때에는 반드시 답답하고 괴로운 것을 참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도창법을 행할 때의 제반 금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3) 「丹溪纂要」의 輪廻酒

『단계찬요』에는 도창법과 관련하여 ‘윤회주’라는 약물이 소개되어 있다. 윤회주란 환자 자신의 소변을 일컫는데 도창법에서는 이를 약물로 사용하는 것이다. 윤회주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는데, “도창법을 행하는데 있어서 요점은 윤회주 십여 잔을 스스로 마셔 위장관에 남아 있는 나머지 찌꺼기들을 다 몰아내는데 있다. 이렇게 하면 새롭게 퍼진 영기와 위기가 藏府와 盲膜으로 하여금 생생한 기운을 내게 하고 묵은 것을 없애서 몰라보게 좋아지게 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그것이 더럽다고 중도에서 그만두어 그간의 노력을 헛되이 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사물의 이치와 변화의 도에 밝은 사람이 아니라면 어찌 좋은 술이라고 여기고 맛이 있다고 여길 수 있겠는가.”⁹⁾라고 하고 있다.

皆倍於前 有似乎腫。其回薄曲折處 非復向時之舊 肉液充滿 流行 有如洪水泛漲。其浮莖陳朽 皆推逐蕩漾 順流而下 不可停留。表者 因吐而汗 瀉道者 自吐而瀉 濁道者 自瀉而去 凡屬滯碍 一洗而空。牛肉 全重厚和順之性 盎然渙然 潤澤 枯槁 補益虛損 寧無精神煥發之樂乎。正似武王克商之後 散財發粟 以賑股民之仰望也。其方出於西域之異人 人於中年後 亦行一二次 亦却疾養壽之一助也。”(朱震亨, 格致餘論, 金元四大家醫學全書,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6, pp.933-934.)

8) “倒倉法 治癱勞蟲癩等證。推陳致新, 扶虛補損, 可吐可下。…… 中略 …… 大概中間飲七八鍾時 藥力經涉經絡骨節 搜逐宿垢 正邪寧不抵牾 悉有急悶 似痛非痛 自有惡况 此皆好消息 邪不勝正 將就擒耳 尤須寧耐忍受。又於欲吐未吐 欲泄未泄交作 皆有惱括意思 皆歡喜樂受 一以靜處之 此等有 太半日景象。不先說知 使方寸瞭 然鮮有不張皇者矣。未行此法前一月 不可近婦人。行此法後 半年不可近婦人 五年勿喫牛肉。如性急好色不守禁忌者 不可行此法也。”(朱震亨, 丹溪心法, 金元四大家醫學全書,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6, p.1232.)

9) “倒倉法全籍自飲輪廻酒十餘盃 以祛逐餘垢, 迎接調勻新布榮衛 使藏府盲膜生意數暢 有脫胎換骨之功也。多嫌其穢 因致中輟 而功虧一篑。若非明物理 通造化者 其肯視爲美饜良味乎?”(朱震亨, 丹溪纂要, 金元四大家醫學全書,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6, p.1285.)

소변을 약으로 쓰거나 약재를 修治하는 과정에 사용하는 경우는 여러 의서에서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단계찬요』에서는 도창법의 치료과정 중에 환자 자신의 소변인 ‘輪廻酒’를 마셔서 치료의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이를 임상에서 응용하기란 쉽지 않다. 현대인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꺼내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환자들이 많아 임상가로서는 환자에게 제안하기가 어려운 아쉬운 점이 있다.

4) 『丹溪心法附餘』의 治痰藥

『단계심법부여』를 지은 方廣은 담을 치료하는 약물을 소개하면서 도창법이 훌륭한 치담의 방법임을 주장하고 있는데, “痰을 치료하는 약물 중에서 천남성과 반하는 담을 말리고 橘紅과 枳殼은 흡어지게 하며, 白茯苓과 豬苓은 스며나가게 하고 황련과 황금은 내려가게 한다. 그리고, 巴豆와 附子是 흘러 통하게 하고 竹瀝과 瓜蒌仁은 적서주어 내려가게 한다. 무릇 담이 오래되어 아교처럼 끈적끈적한 상태로 가슴 속에 딱 들어붙어 있거나 腸胃의 바깥에 엉켜 붙어 있을 경우에는 하천고를 써서 스며들게 하여 담을 움직이게 하지 않으면 어찌 위로 토하게 하거나 아래로 설사시켜 내보낼 수 있겠는가? 무릇 하천고를 써서 토하게 하고 설사시켜 痰積을 없애면 元氣가 虛損되는 상태에 이르지 않기에 좋은 방법인 것이다. 앞에서 도창법으로 癰癢, 勞瘵, 鼓脹, 噎膈 등의 증상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들은 모두 氣가 허한데 痰이 쌓여 생긴 병이다. 나의 생각에는 이상의 네 가지 증을 치료할 때 허한 것을 보하는 약에 하천고를 넣어 써서 담적을 없애면 반드시 잘 낫겠는데 사람들이 이 묘한 작용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¹⁰⁾라고 하고 있다. 여기서의 몸

안에 생기는 비생리적 물질인 담의 원인이 기가 허해서도 생길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일반적으로 담을 제거할 때 쓰는 토하고 설사시키는 방법이 아니라 원기를 보하면서 담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하천고를 사용하는 도창법을 제시하고 있다.

5) 『醫學正傳』의 倒倉之義

『의학정전』에는 도창법을 소개하면서 저자인 虞搏이 도창법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 글이 있다. 이는 도창법의 금기 및 주의사항에 관련된 것으로 그 내용은 “도창이라는 것은 창고에 있는 묵은 것과 썩은 것들을 뒤집어엮는 것이다. 脾胃와 大小腸에 食積이나 痰飲이 있어 복통, 痞癖, 食癆, 黃疸, 痞滿, 惡心, 噎氣, 吞酸 등의 증상이 나타날 때 쓰면 낫지 않는 경우가 없다. 그 외 일체 氣血이 虛損된 경우, 反胃, 嘔噎, 鼓脹, 勞瘵, 大風 등의 증상이 이미 이루어진 경우, 병자가 살이 쪼고 피부가 희며 기운이 약한 사람인 경우, 맥이 虛하고 힘이 없는 경우 등에는 절대로 경솔하게 쓰지 말아야 한다.”¹¹⁾라고 되어 있다. 『의학정전』에 실려 있는 우단의 ‘倒倉之義’라는 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바는 도창법을 응용할 수 있는 질병의 공통점은 바로 몸 안에 담이 성한 경우라는 점이다. 따라서, 담을 제거하는 것이 도창법의 목적이며 위장관에 쌓여 있는 담을 제거하여 주는 것이 도창법이 가지는 치료의 의미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기혈이 허손된 사람이나 맥이 허한 사람에게는 경솔하게 쓰면 안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동의보감』으로 수용되면서 도창법을 행함에 있어서 보하는 것을 겸하며 실시해야 한다는 의론으로 절충된다.

6) 『韓氏醫通』의 震天膏

도창법을 행할 때 사용하는 주요약물이 바로 하천고이다. 명대의 한무(韓懋)는 자신의 저작인 『한씨 의통』에서 하천고에 관하여 상세하게 서술하였는데,

10) “治痰之藥 南星半夏 所以燥之. 橘紅枳殼 所以散之. 茯苓猪苓 所以滲之. 黃連黃芩 所以降之. 巴豆附子 流通之義. 竹瀝瓜蒌 潤下之義. 夫老痰稠粘 膠固於胸臆之間 依附盤泊於腸胃之外 苟非震天膏之浸潤流動 而能從上從下 以出之乎? 夫用此膏 吐瀉以去痰積 則不致虛損元氣 所以爲美也. 前倒倉法 能治癰勞鼓噎之證 乃虛氣有痰積也. 愚意 治此四證 於補虛藥中加震天膏 以去痰積 必然安愈 無人知此之妙訣也.” (方廣. 丹溪心法附餘.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896.)

11) “倒倉者 傾倒倉庫之陳腐也. 脾胃與大小腸有食積痰飲 爲腹痛 痞癖 食癆 黃疸 痞滿 惡心 噎氣 吞酸等證 行之無不應手獲效. 其餘一應氣血虛損 與反胃嘔噎 鼓脹勞瘵 大風眞病已成 及肥白氣虛之人 脉虛軟無力者 切不可輕試也.” (虞搏. 醫學正傳. 서울. 成輔社. 1986. pp.150-151.)

“이 처방이 바로 옛날 도창법인데 西域에 사는 어떤 사람이 전해주었다. 황소 한 마리를 준비하는데 완전히 누런색이고 살이 찌고 병이 없으면서 겨우 2-3세 된 것을 잡는다. 4개의 다리, 목덜미, 등심살 등을 쓰는데 힘줄과 막은 버린다. 살코기를 밤톨 만하게 썰어서 4-5근을 준비한다. 조용한 집에서 큰 가마솥에 넣고 강물을 붓고 계속 저으면서 삶는다. 물이 줄어들면 끓는 물을 더 붓는데 항상 물이 고기를 5-6촌 남짓 덮을 수 있도록 부어야 한다. 그리고 뜨는 거품을 걷어 내면서 쇠고기가 진흙같이 문드러질 때까지 푹 삶는다. 이것을 배주머니에 걸러 찌꺼기를 버린 다음 다시 작은 구리 솥에 넣고 세지도 약하지도 않은 뽕나무를 때는 불로 계속 저으면서 졸인다. 뜨거운 물은 더 넣지 말고 고기즙만 계속 졸이는데, 점차 마치 물엿처럼 되어 물에 떨어뜨려 보아도 풀어지지 않으며 색이 호박빛을 띠면 고약이 다 된 것이다. 불의 조절이 가장 중요한데, 마음을 쓰지 않으면 잘못되기 때문이다. 대체로 고기 12근으로 1근 정도가 되게 고약을 만들어 사기그릇에 담아 두고 사용하는데 이것을 하천고라고 한다. 이것을 약과 섞어 쓸 때에는 처음에는 적게 쓰다가 점차 양을 늘여야 한다. 고약은 끓이거나 데우면 저절로 녹는다. 환약을 만들려면 고약 3푼에 밀가루 1푼의 비율로 함께 달여 풀을 만들거나 꿀을 사용한다. 겨울철에 오랫동안 두어 곰팡이가 생긴 경우에는 중탕을 하여 달여 제거한다. 여름에는 차가운 물에 담겨 암실에 둘 수 있지만 3일 정도 가능하다.”¹²⁾라고 하였다. 『韓氏醫通』에서 한무는 하천고의 유래와 준비과정부터 만드는 방법을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또한 복용법 및 보관상의 유의할

점 등을 설명하고 있는데, 상당한 시간과 정성이 가해져야만 되는 과정임을 파악할 수 있다. 현대적으로 도창법을 임상에서 응용하려고 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하천고의 사용여부이다. 하천고의 제작과정이 지금의 상황에서는 쉽지 않기에 필자의 한의원을 비롯하여 도창법을 응용하는 여러 한의원에서는 발효한약으로 하천고를 대체하여 사용하고 있다.

3. 한국의서에 언급된 도창법

우리나라의 의서에서의 도창법에 대한 언급의 역사는 매우 길다. 조선 초기부터 광복이후의 서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적에서 도창법의 의미와 활용법 등을 언급하고 있는데 시대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동의보감』 출간 이전의 서적

(1) 『醫方類聚』의 도창법

『의방유취』의 적취문에서는 『玉機微義』의 적취문에 나오는 설명을 인용하여 적취치료에 도창법을 원용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그 내용 “주단계는 ‘질정, 고향진미, 담음, 어혈 등이 영키어 오랫동안 울결이 되면 취가 된다. 심하면 마치 복숭아씨 같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모양의 괴상한 벌레 같은 것이 그 속에서 생기며 그 증상이 밖으로 드러나 癱瘓, 勞瘵, 鼓脹, 癩疾, 이름 없는 기이한 병 등이 된다.’라고 하였다. 이 때 이 방법을 쓰는 것이 마땅하다. 암소를 사용한다.(『육기미의』에는 황소라고 되어 있다.) 살진 소고기 1-20을 큰 가마에 넣고 長流水를 부은 다음 삶는데, 고기가 고아져서 살이 문드러지면 끓는 물에 넣어 액체로 만들고 삼베로 찌꺼기를 걸러 낸다. 그런 후 맑은 즙을 다시 솥에 넣고 文武火로 달여 琥珀色을 띠면 完成된 것이다. 이렇게 만든 것을 매번 한 잔을 마시고 잠시 후에 또 마시는데, 이와 같이 마시기를 십 수 잔이 될 때까지 한다. 겨울에는 중탕을 하여 따뜻하게 마신다. 病이 上焦에 있으면 따를 많이 시키고, 병이 下焦에 있으면 설사를 많이 시키며, 병이 中焦에 있으면 따와 설사를 모두 시켜야 할 것이다. 오로지 사람을 살리는데 있어서 이 방법을 사용하고 병의 완급과 많고 적음

12) “此方卽倒倉古法 傳自西域異人. 黃牯牛一具 選純黃肥澤無病 纔二三歲者 宰取四腿項脊 去筋膜 將精肉切成塊如栗子大 秤四五十斤 於靜室大鍋中 以長流水不時攪動 水耗則旋添熱湯 常使水淹肉至五六寸 掠去浮沫 直至肉爛如泥 瀘去滓 將汁再入小銅鍋 用桑柴文武火煮 不住手攪 不添熱湯 只用汁煮漸如稀餡 滴水中不散 色如琥珀 其膏成矣. 火候最要用心 否則壞矣. 大段每肉十二斤 煉膏一斤爲度 磁器盛之是名霞天膏也. 用調藥劑 初少漸多 沸熱自然熔化. 用和丸劑則每三分 搗白麪一分 同煮成糊 或用煉蜜 寒天久收 若生黴用重湯煮過 熱天則冷水甞之 可留三日.” (韓懋. 韓氏醫通. 湖南電子音像出版社. 中華醫典[CD-ROM]. 134.)

에 따라야 할 것이다. 날씨가 맑은 날 아침에 깨끗한 방안에 바람이 통하지 않는 곳에서 병자를 앉혀 놓고 몸에서 나온 오물을 살펴 병의 뿌리가 다 제거 되면 약을 더 이상 먹이지 않는다. 따하고 설사를 한 후에 혹시 渴症나도 더운물을 먹여서는 안된다. 환자의 소변이 반드시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받아 환자에게 마시게 하는 것을 轉廻酒(『옥기미의』에는 輪廻酒라고 되어 있다.)라고 한다. 한두 잔 먹이면 渴症을 멈추게 할 뿐만 아니라 몸 안에 남은 찌꺼기를 씻어내 주는 효과가 있다. 하루 이틀 잠자고 일어나 배고픔을 심하게 느끼면 맑은 粥을 먹게 한다. 3일 후에 비로소 약간의 채소국을 먹게 하는데, 이렇게 반달을 조리하면 정신이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지며 뿌리 깊은 병이 모두 없어진다. 이후 5년 동안은 반드시 소고기를 먹지 않아야 한다.”¹³⁾와 같다. 『의방유취』의 적취문에서 서술하고 있는 도창법에 관한 내용은 상술한 중국의학들의 서적에 나오는 도창법에 관한 설명과 유사함을 보이면서도 중국의학의 주체적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 『醫林撮要』의 하천고

『의림촬요』 卷之三의 담음문에 하천고에 대한 언급이 있다. 상술한 韓懋의 『한씨의통』에서 서술한 하천고에 대한 내용을 인용하여 준비과정부터 만드는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복용법 및 보관상의 유의할 점 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방광의 『단계심법부여』의 내용을 인용하여 담을 치료하는 여러 가지 약물들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虛痰과 老痰의

경우 체내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기에 토하고 설사시키는 방법이 잘 듣지 않으므로 원기를 보하면서 담을 제거하는 방법을 써야하니 하천고를 다른 약들과 함께 섞어 사용해야 한다.”라고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¹⁴⁾. 이는 이후 『동의보감』 및 그 이후의 서적들의 담음치료법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내용이다.

2) 『東醫寶鑑』의 도창법

『동의보감』에서 도창법이 실려 있는 부분은 雜病篇의 吐門이다. 여기서는 李東垣, 朱丹溪, 韓懋, 虞搏 등 여러 의가들의 도창법에 대한 언급을 참고하여 토법 중의 한 방법으로서의 도창법에 대한 서술을 하고 있다. 도창법은 『동의보감』의 토문에 실려 있는데, 여기서의 토법은 유무형의 사기를 몰아내는 방법으로서의 치법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 이는 담음문의 울담에 대한 설명에 잘 나타나 있는데, 여기에서 『동의보감』의 담음치료에 대한 기준과 도창법의 응용에 대한 인식을 잘 이해할 수 있다. 그 내용은 “울담은 老痰이나 燥痰과 같다. 즉 火痰이 心과 肺 사이에 몰린 것이 오래되면 가슴에 멍치고 걸쭉해져 뱉기 힘들며, 흔히 머리털이 바스라지고 얼굴 빛은 마른 뼈와 같이 허약하게 되고 목과 입이 마르고 기침이 나며 숨이 몹시 차다. 이런 데는 절제화담환, 억담환, 하천고, 청화할담환, 가감이진탕, 과루지실탕 등을 쓰는 것이 좋다.”¹⁵⁾라고 한 서술과 “허담(虛痰)이나 노담으로 가래가 아교처럼 걸쭉해져 가슴에도 붙어 있고 창자에도 영겨 붙은 데는 반드시 이 고약을 써야 한다. 이 약을 쓰면 토하고 설사는 하지만 虛損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문동병, 노채, 고창, 열격병 등에는 허한 것을 보하는 약에 이 약을 넣어 써야 한다. 그러면 痰積이 삭기 때문에 훌륭한 치료효과를 볼 수 있다. 이 고약을 먹는 것이 倒倉

13) “倒倉法 丹溪曰 人之七情厚味 停痰瘀血 互相糾纏 日積月深 鬱結成聚 甚者如桃核之積 諸般奇形之蟲 成於中 形於外 發爲癰瘰 爲癆瘵 爲蠱脹 爲癩疾 爲無名奇病 宜行此法 用黃粘(玉機微義作牡) 牛肉 擇肥者 買一十二斤 長流水煮糜爛 融入湯中爲液 以布濾出粗滓 取淨汁 再入鍋 文武火熬成琥珀色則成矣. 每飲壹鐘 少時又飲 如此者積十數鐘. 寒月則重湯溫而飲之. 病在上者 欲其吐多 病在下者 欲其利多 病在中者 欲其吐利俱多 全在活法而爲緩急多寡也. 須晴明日 早 於一室明快不通風處 以安病人 視所出之物 可盡病根則止. 吐利後或渴 不得與湯水 其小便必長 取以飲病者 名曰轉(玉機微義作輪)廻酒 與一二碗 非惟可以止渴 抑且可滌濯餘垢. 睡一二日 覺飢甚 乃與粥淡食之 待三日後 始與少菜羹 自養半月 覺精神煥發 形體輕健 沈痼悉除 其後須五年忌牛肉.”(東醫科學院校閱. 의방유취 9권. 서울. 여강 영인. 1994. pp.326-327.)

14) “如虛痰老痰稠粘 膠固於胸膈 依附盤泊於腸胃 當用此膏 吐瀉不致虛損. 凡氣如癰勞鼓啞 於補虛藥中加之 以去痰積可收萬全. 服此 比之倒倉 更穩仍須善養者.”(楊禮壽. 醫林撮要. 韓國科學技術史資料大系. 麗江出版社. 1988. p.433.)

15) “鬱痰與老痰燥痰同. 卽火鬱於心肺之間 久則癰滯胸膈稠粘難咯 多毛焦而色白如枯骨 咽乾口燥咳嗽喘促. 宜節齊化痰丸 抑痰丸 震天膏 清火豁痰丸 加減二陳湯 瓜蒌枳實湯.”(許浚. 東醫寶鑑. 서울. 남산당. 1991. p.130.)

法을 쓰는 것보다 오히려 안전하다. 보통 實痰과 새로 생긴 담을 치료할 때에는 천남성과 반하로 마르게 하고 곽홍과 지각으로 해쳐 버리며, 저령과 복령으로 스며나가게 하고 황금과 황련으로 내려가게 하며, 파두와 부자로 움직이게 하고 죽력과 과루인으로 축여서 내려가게 해야 한다.”¹⁶⁾는 서술 등이다.

이상의 내용을 통하여 『동의보감』에서는 도창법을 사용하여 담으로 인하여 생긴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하였으며, 이 과정은 한토하 삼법 중 토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 치료과정이 환자의 정기를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거나 환자가 허손된 상태가 심하다면 사하는 가운데 보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담을 치료해야 한다는 것이 『동의보감』의 담을 치료하는 근본 사상임을 알 수 있다.

3) 「동의보감」 이후의 서적들

(1) 「廣濟秘笈」의 적취치료

『광제비급』 잡병문의 적취에 관한 설명에 도창법과 관련된 흥미로운 내용이 있다. 그 내용은 “적취는 허한 사람의 질병이다. 장자화는 積이 사람의 몸에 항상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도창법을 써서 목은 것을 밀어내는 방법을 행하였다. 그러나, 지금 사람의 앓는 병은 아주 달라서 병을 공격하는 약과 보하는 약을 곁해서 써야 절반쯤 치료될 수 있다. 『내경』에서 그 절반쯤 없애고는 약을 그치라고 한 것은 병이 절반쯤 제거되면 약을 쓰지 말라는 것이다. 만약 세계 설사하는 약을 지나치게 써서 胃氣를 상하면 병은 나으나 사람은 이미 쇠약해져 버린다. 양정제적탕을 일반적으로 사용한다.”¹⁷⁾라는 설명이다.

16) “治虛痰老痰 稠粘膠固於胸臆依附盤泊於腸胃 當用此膏吐瀉不致虛損 如癆瘵鼓噎 於補虛藥中加之 以去痰積可收萬全 服此比之倒倉更穩 凡治實痰新痰 用南星半夏燥之 橘紅枳殼散之 猪苓茯苓滲之 黃芩黃連降之 巴豆附子流通之 竹瀝瓜蒌潤下之。”(許浚, 東醫寶鑑, 서울, 남산당, 1991, p.130.)

17) “虛人之疾, 子和曰 積非人身常有之物 有倒倉推陳之法. 然今人所苦絕異 攻補兼施 可得半痊. 經曰 衰其大半而止藥言病半除 而勿藥也. 若過用峻利 胃氣受傷 則病雖愈人已衰. 通用養正除積湯.”(李景華, 廣濟秘笈, 여강 영인, 서울, 1994, p.42.)

이처럼 『광제비급』의 적취 치료에 대한 설명에서는 공사법과 보법의 겸용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적취가 허한 사람들에게서 잘 생기는 병이기에 치료과정 중에서 환자의 정기를 더욱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도창법으로 사하는 가운데 보하는 방법으로 적취를 치료해야한다는 것이다. 상술한 『동의보감』의 담을 치료하는 근본 사상과 상당한 유사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 「附方便覽」의 내상치료

『부방편람』 제15권 내상문에도 도창법에 대한 언급이 있다. 상술한 여러 의서들의 내용과 유사하게 도창법의 방법 및 적응증 등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또한 하천고에 대한 제조법과 윤회주를 마시는 방법 등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다.

(3) 「醫鑑抄集」의 鬱痰

『동의보감』의 주요 처방을 선별하여 정리한 의방서 중의 하나인 『의감초집』의 ‘울담’의 내용은 『동의보감』 담음문의 ‘울담’에 나오는 하천고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전제하고 있다. 『의감초집』의 울담치료는 『동의보감』의 담음치료 및 도창법의 응용과 유사하다.

(4) 「宜集」18)의 積聚

『의휘』의 적취문에도 도창법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는 상술한 이경화의 『광제비급』에 실린 적취 치료의 내용을 전제하고 있다. 『광제비급』의 적취 치료는 공사법과 보법의 겸용을 주장하고 있는데, 『의휘』의 적취문에서도 도창법으로 사하는 가운데 보하는 방법으로 적취를 치료해야한다는 정신을 잘 계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도창법의 응용

18) 조선 고종 때 금리산인(錦里散人)이 쓴 의방서이다. 필사본으로 5권 5책으로 되어 있다. 그 제문(題文)에 신미계춘하한(辛未季春下澣)이라 적혀져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선시대 고종(高宗) 8년(1871)에 만들어진 것이라 생각된다. 금리산인은 누구인지 자세히 알 수 없다. (경희대학교 출판국, 『동양의학대사전』 8권, p. 164)

도창법을 응용하여 치료한 질병은 매우 다양하다. 이는 담이 그만큼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인데, 『동의보감』의 답음문에 나오는 “왕은군담론”의 내용을 살펴보면 얼마나 많은 질병이 담으로부터 비롯되는지 잘 알 수가 있다. 그 내용은 “痰證에 대한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자세하지 못하다. 의학책에서 懸飲, 留飲, 支飲, 痰飲 등 여러 가지 음들은 차이가 있다고 했으나 이 병의 원인은 알 수 없다. 그러나 담으로 혹 頭風證과 어지럼증이 생겨 눈앞이 아찔하고 耳鳴이 있으며 입과 눈이 푸들거리고 눈썹이 난 곳과 콧바퀴가 가렵기도 하며 혹 팔다리에 遊風證이 생겨 뚝뚝하게 부어서 아픈 것 같기도 하고 아프지 않은 것 같기도 하며 혹 이빨과 뺨이 가렵고 아프며 잇몸이 부으면서 아프고 가려운데 일정하지는 않다. 그리고 혹 트림이 나고 신물이 올라오며 명치 밑이 쓰리고 구역과 딸꾹질이 난다. 또한 목이 메고 답답하여 뻐어도 나오지 않고 삼켜도 넘어가지 않는다. 가래의 빛은 그늘음 같고 생김새는 흰숨이나 복숭아나무진이나 가막조개살 같다. 혹은 명치 밑에 얼음이 머물러 있는 것 같고 왼쪽 젖가슴이 때때로 싸늘하면서 아프거나 꿈에 괴상한 모양들이 나타나며 발목이 시큰거리고 약해지며 허리와 등이 갑자기 아프거나 팔다리마디들이 일정한 곳이 없이 안타깝게 아프고 심지어는 손이 저리며 팔이 마치 집질린 것같이 아프다. 그리고 등뼈 가운데가 손바닥 크기만큼 얼음같이 차면서 아프기도 하고 온몸이 스물스물 하면서 별레가 기어 다니는 것 같기도 하며 혹은 눈시울이 깔깔하고 가려우며 입과 혀가 허는 데 심하면 喉閉證이 생긴다. 또한 목둘레에 멍울이 생긴 것이 癭癧같으나 나력은 아니다. 그리고 혹 가슴과 배 사이에 두 가지 기운이 서로 얽힌 것 같기도 하고 목이 메어 안타깝게 답답하기도 하며 연기가 위로 떠오르는 것처럼 머리와 얼굴이 화끈화끈 다는 것 같기도 하고 정신을 잃는 癡狂證이 생기기도 한다. 또한 中風이 되어 팔다리를 쓰지 못하거나 勞瘵같이 오래 앓는 병이 된다. 혹은 風痺나 脚氣病이 되고 혹은 명치 밑이 들먹거리고 놀란 것처럼 가슴이 두근거리며 누가 잡으러 오는 것 같아서 무섭다. 혹은 숨이 차면서 기침이 나고 토하거나 군

침과 푸르스름한 물과 검은 즙 같은 것을 뱉는데 심해지면 肺癰이 된다. 腸毒이 되어 대변에 피고름이 섞여 나오기도 하며 힘줄이 땅기어 다리를 절기도 한다. 이와 같이 안팎으로 생기는 병이 몇 백 가지인지 모르는데 모두 痰으로 생긴다. 진액이 영커서 痰이 되고 飲이 되는데 이것이 上焦에 몰리면 입과 목이 마르고 下焦로 내려가면 대소변이 막히고 얼굴도 윤기가 없어져 마른 뼈의 색깔이 되며 머리털이 마른다. 그리고 부인들을 생리까지 없애지고 어린이들은 驚癇이나 癎癎이 생긴다. 치료는 먼저 목은 痰을 몰아낸 다음 허실을 가려서 조리해야 한다. 그러므로 沈香滾痰丸을 만들어 삼초의 담음을 두루 치료하는 약제로 써야 한다.”¹⁹⁾로 서술되어 있다.

이처럼 담으로 인하여 생기는 질병은 참으로 다양하다. 이와 같은 다양한 질병의 도창법을 통한 치료는 중국과 한국의 여러 의서 속에 나오는 의안을 통하여 잘 살펴볼 수 있다. 담음에 대하여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였고, 도창법이 처음으로 언급된 서적인 『격치여론』을 지은 주단계의 의안이 그의 저작에 실려 있다. 『격치여론』에 실려 있는 ‘도창론’에서 언급하고 있는 몇 가지의 의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서술한 것은 본인의 스승을 치료한 의안이다. 그 내용은 “나의 스승인 許文懿가 처음에 心痛을 앓으셨는데, 정향, 부자, 육계, 건강 등의 燥熱香辛한 藥物을 사용하여 數十年동안 치료하였으나 오

19) “痰證 古今未詳. 方書雖有懸飲 留飲 支飲 痰飲 諸飲之異而莫知其爲病之源 或頭風眩暈 目昏耳鳴, 或口眼蠕動 眉稜耳輪癢痒, 或四肢遊風腫硬 似痛非痛, 或爲齒頰痒痛 牙床浮腫 而痛痒不一, 或噎氣吞酸 嘈雜嘔噦, 或咽嗔不利 咯之不出 嚥之不下 色如煤食 形如敗絮 桃膠 蜆肉之類, 或心下如停水雪 心頭冷痛時作, 或夢寐奇怪鬼魅之狀, 或足腕痿軟 腰背卒痛, 或四肢骨節煩疼 並無常所 乃至手麻臂痛 狀若挫閃, 或脊中每有一掌 如水凍之寒痛者, 或渾身習習如蟲行者, 或眼眶澁痒 口糜舌爛 甚爲喉閉等證, 又或逸項結核 似癭非癭, 或胸腹間如有二氣交紐 噎塞煩悶 有如烟氣上衝 頭面烘熱, 或爲失志癡狂, 或爲中風癱瘓, 或爲勞瘵在苒之疾, 或爲風痺及脚氣之候, 或心下怔忡驚悸 如畏人將捕, 或喘嗽嘔吐, 或嘔冷涎綠水黑汁 甚爲肺癰 腸毒 便膿 擊鼓, 其爲內外疾病非止百端 皆痰之所致也. 蓋津液既凝爲痰爲飲 而胸膈上焦故口燥咽乾, 流而之下 則大小便閉塞 面如枯骨 毛髮焦乾 婦人則經閉不通 小兒則驚癇搐搦. 治法宜先逐去痰飲 然後看虛實調理 故製沈香滾痰丸 爲通治三焦痰飲之劑也.”(許浚, 東醫寶鑑, 서울, 남산당, 1991, p.128.)

허려 다리가 당기면서 아픈 것이甚해지고 惡寒, 嘔吐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증세가 심해지자 靈砂, 黑錫, 黃芽, 歲丹 등의 광물성 약제를 복용하고 이어 썩뚝 십여만 장을 뜨기까지 하였다. 또한 여러 가지 치료법으로 數年間 치료하였으나 통증이 더욱 심해져 스스로 廢人이 되었다고 여겼다. 여러 의사들도 또한 도모할 방법이 없었다. 이와 같이 지 내기를 또 몇 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한달 동안 煩渴, 惡食 등이 나타나서 通聖散으로 반 달 남짓 치료하였다. 大腸의 逼迫感, 後重感, 肛門의 타는 듯한 熱感 등이 나타나더니 비로소 문드러진 五色 비단과 같고 오구목을 태운 기름이 응고된 것처럼 보이는 積滯物을 거의 반달 동안 설사한 후 마치 病이 물러난 듯하였다. 또 반달 뒤에 음식은 조금 먹을 수 있었으나 양 다리는 조금도 움직일 수 없었는데 도무지 방법이 없었다. 이듬해 三月이 되어 마침내 이 倒倉法을 시행하니 症狀이 차례차례 호전되어 완전히 회복되었다. 다음해에 다시 사내아이를 보았고 그 후 14년을 더 살다가 세상을 떠나셨다.”²⁰⁾와 같다. 심통에 관한 의안으로 여러 가지 치료의 시행착오를 거친 끝에 도창법을 통하여 증상을 치료하고 장수를 하였다는 내용이다.

이 외에도 각기를 오랫동안 앓은 여자 환자를 도창법을 사용하여 하지의 습담을 제거함으로써 각기를 치료하였다는 의안, 소변이 탁하면서 유정이 있는 사람의 하초에 울체된 습열로 인하여 생긴 담을 도창법을 통하여 제거함으로써 치료를 하였다는 의안, 해수병과 각혈을 오랫동안 앓은 사람이 몸이 허한 데도 담이 많아 구토와 설사를 시키지 않고 보려 하는 약물 중에 하친고를 넣어 처방하여 치료를 하였다는 의안 등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한 의안이 실

려 있다.

이상의 여러 의안을 통하여 도창법으로 치료할 수 있는 질환이 심통, 각기, 소변탁, 유정, 해수, 각혈 등으로 상당히 다양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다양한 질병이 상술한 바와 같이 담음이 원인이 되어 생겨난 것임을 이해할 수 있다.

5. 도창법의 현대적 응용

도창법은 담으로 인한 다양한 질병에 응용이 되어 치료를 담당하였음을 상술한 내용을 통하여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는 고의서에 실려 전해지는 하나의 방법으로 치부될 것이 아니라 현대에 이르러서도 다양한 질병의 치료에 응용이 될 수 있다.

현대인들의 많은 질환 중 痰飲이 그 원인인 경우가 의외로 많다. 그러나, 이는 변증과 진단이 쉽지 않은 관계로 제대로 치료의 초점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²¹⁾.

본 논문에서는 최근 일부 한의원에서 현대인들에게 많은 담으로 인한 질병 중 대표적인 만성 질환인 비만에 대하여 도창법을 응용하여 치료하는 모습과 해독요법으로 대사성질환에 접근하는 모습을 소개하여 보고자 한다.

1) 비만 치료

현대인들의 가장 대표적인 고민거리는 바로 비만이다. 비만은 다양한 성인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여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최근 필자의 한의원을 포함하는 네트워크 모임에서는 도창법을 응용한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환자들에게 치료법을 제공하여 환영을 받고 있다²²⁾. 이 네트워크 한의원에서 행하여지는 비만 치

20) “吾師 許文懿 始病心痛 用藥燥熱香辛 如丁附桂薑輩 治數十年而足學痛甚 且惡寒而多嘔 甚而至於靈砂 黑錫 黃芽 歲丹 繼之以艾火十餘萬 又雜治數年而痛甚 自分爲廢人矣 衆工亦技窮矣 如此者 又數年 因其煩渴惡食者一月 以通聖散 與半月餘而大腑逼迫 後重肛門熱氣如燒 始時下積滯 如五色爛錦者 如柏油凝者 近半月而病似退 又半月而略思穀 而兩足難移 計無所出 至次年三月 遂作此法 節節如應 因得爲全人 次年再得一男 又十四年以壽終。”(朱震亨, 格致餘論. 金元四大家醫學全書.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6. p.934.)

21) 소진백은 현대인들에게 많은 담병을 원인에 따라 다섯 가지로 나누고 그 증상에 따른 치법들은 『東醫寶鑑』에 나오는 痰飲에 관한 논의들로 분류하였다. 그는 주단계의 痰飲論은 현대인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질병에 대하여 운용할 수 있는 요소를 많이 지니고 있는데, 이는 食痰, 酒痰, 驚痰, 鬱痰, 氣痰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임상에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 것들이라고 주장했다. (소진백, 『동의보감』에 보이는 단계담음론의 의학적 고찰.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22) <<http://www.tahara.kr>>

료법의 핵심은 “위장관의 휴식”인데, 이는 도창법의 “창고에 있는 묵은 것과 썩은 것들을 가려서 버린다.”는 정의에서 아이디어를 따온 것이다. 인체 내의 비, 위, 소장, 대장 등의 소화기관에 쌓여있는 노폐물들을 제거함으로써 환자의 체중을 조절하여 주는 치료법이다.

모두 5주 정도의 시간으로 진행되는 이 다이어트 프로그램은 1주일간의 감식기, 2주일간의 절식기, 그리고 2주일간의 회복기 등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특히, 절식기 동안 다른 음식은 전혀 먹지 않고 발효 한약액만을 복용한다. 이는 상술한 도창법을 시행하는 약물로 사용하는 하천고와 유사한데, 하천고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체내의 노폐물을 제거시켜주는 좋은 대체제이다.

2) 해독치료

담으로 인한 다양한 대사성 증후군 또한 현대인들이 두려워하는 대표적인 질환이다. 이를 치료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독요법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다양한 치료법들이 있는데, 이 또한 도창법으로 담을 제거하는 방법에 의거하고 있는 것이다. 상술한 한의원 네트워크에서는 장의 숙변이나 노폐물 어혈 독소 등을 체외로 배출시킴으로써 고혈압, 고지혈증, 부종, 음식 관련 알러지, 각종 소화기계 질환, 만성피로, 코골이, 등의 질병을 치료한다. 이러한 방법은 최근에 서양의학자들도 종종 응용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²³⁾.

이상의 논의에서 알 수 있는 바는 도창법을 응용할 수 있는 질병의 공통점은 바로 몸 안에 담이 성한 경우라는 점이다. 따라서, 담을 제거하는 것이 도창법의 목적이며 위장관에 쌓여 있는 담을 제거하

여 주는 것이 도창법이 가지는 치료의 의미인 것이다. 이는 도창법을 현대적으로 응용할 때도 위장관에 충분한 휴식을 주어 몸에서 생겨나는 비생리적 물질인 담을 제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 도창법을 응용한 환자의 임상례

도창법을 응용하여 해독치료를 한 환자의 두 가지 임상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환자는 37세의 남자환자로 신장이 159cm이며 체중이 100.1kg인 은행원이다. 처음 본원에 내원하였을 때 환자의 상태는 심각하였다. 신장에 비해 과다하게 체중이 나가고 혈압은 132/91mmHg였다. 환자의 주된 증상은 코골이, 양손 끝이 항상 저림, 두피와 얼굴피부가 건조하고 두피는 각질이 심함, 항상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됨, 소변이 시원하지 않음, 대변은 1일 3회로 무른 편이고 설사를 자주 함, 수면 중 자주 깨고 코골이가 심한 편 등 다양한 증상이 몸에서 나타남을 호소하였다. 과거력으로는 10년 전에 요로결석을 잠시 앓은 정도였다.

본원의 디톡스 프로그램을 5주간 실시하면서 한약을 복용시키고 내원할 때마다 음이온 사우나 20분, 반신욕 20분, 항산화치료 등을 하고 환자 스스로가 매일 달리기 평균 2시간의 운동을 행하였다.

첫째주 일주일간 가미육군자탕²⁴⁾ 10첩을 투여하였다. 둘째와 셋째주의 절식기 2주 동안은 일체의 음식물을 금지하고 발효한약만을 먹게 하였다. 넷째주와 다섯째주 회복기 2주동안은 보중익기탕²⁵⁾ 20첩을 투여하였다.

환자가 5주간의 프로그램을 마친 결과 코골이가 거의 없어지고 손끝의 저림증상이 없어졌다. 또한 몸이 가볍고 피부가 좋아지고, 소화와 대변상태도 양호하였으며 소변도 시원하게 되었다. 체중변화는 100.1kg에서 83.0kg으로 17.1kg이 감소하였고 복

23) ‘痰’은 한의학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다. 하지만, 최근에 해독과 관련된 서양의사가 쓴 책들에서 해독을 하는 과정에 나오는 부산물을 지칭하는 표현을 보자면 담을 표현한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많다. 예를 들면, 알레한드로 융거가 쓴 『클린』이라는 책에서는 ‘점액찌꺼기’, ‘점액플라크’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세포와 조직에 스며들어 있다가 해독의 과정을 거치면서 혈액순환계로 다시 들어가 장벽을 통해 장관강으로 나오는 점액”이라는 설명을 하고 있다. (알레한드로 융거 지음, 조진경 옮김. 『클린』, 서울. 쌤앤파커스. 서울. 2010. p.293.)

24) 향부자 2돈, 진피 반하 백출 백복령 각 1.5돈, 인삼 삼릉(醋炒) 봉출(醋炒) 광향 백편두 각 1돈, 사인 목향 감초 각 5푼, 생강 대추 각 1돈.

25) 황기 1.5돈, 인삼 백출 당귀신 진피 감초 광향 백편두 각 1돈, 승마 시호 황백(蜜炙) 각 3푼, 홍화 2푼.

부지방률은 1.04에서 0.99로 체지방량은 40.7kg에서 29.2kg으로 감소하였다.

두 번째 환자는 31세의 여자환자로 신장이 153cm이며 체중이 74.9kg인 교사이다. 결혼 당시 60kg이었던 체중이 급격하게 불어남에 따라 손발이 저리고, 밤에 자다가 악몽을 꿀 때가 많으며, 속쓰림이 심하였다. 또한 항상 두통이 있고 뒷목, 어깨 통증이 있으며 생리주기가 불규칙하였다. 혈압이 또한 134/97mmHg로 다소 높은 편이고 얼굴은 항상 붉었으며 코가 항상 막혀 있어서 숨쉬기가 불편하였다. 과거력으로는 23세 때 다낭성 난소증후군을 앓은 정도였다.

본원의 디톡스 프로그램을 5주간 실시하면서 한약을 복용시키고 내원할 때마다 의 음이온 사우나 20분, 반신욕 20분, 항산화치료 등을 실시하였다.

첫째주 일주일간 방풍통성산 가감²⁶⁾ 10첩을 투여하였다. 둘째주와 셋째주의 절식기 2주 동안은 일체의 음식물을 금지하고 발효한약만을 먹게 하였다. 넷째주와 다섯째주 회복기 2주동안은 보중익기탕²⁷⁾ 20첩을 투여하였다.

환자가 5주간의 프로그램을 마친 결과 혈압이 처음보다 132/86mmHg으로 다소 내려가면서 두통도 감소하였다. 생리가 3달간 없다가 시작하였으며 얼굴의 붉은 기운이 감소하였다. 체중의 변화는 74.9에서 66.7kg으로 8.2kg 감소하였다. 복부지방률은 0.93에서 0.90으로 체지방량은 31.6kg에서 26.5kg으로 감소하였다.

도창법을 응용한 디톡스요법으로 상당량의 체중 감소와 체내의 많은 담음으로 인하여 생겨난 다양한 증상들을 제거시킬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은 힘들이지 않고 비만치료를 할 수 있기에 환자들의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

Ⅲ. 결 론

倒倉法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倒倉法은 『東醫寶鑑』의 雜病篇 吐門에 나오는 인체의 사기를 몰아내는 치료법 중의 하나이다. 특히, 다양한 질병의 원인인 ‘痰’을 제거하여 병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2. 중국에서는 『格致餘論』을 필두로 명나라와 청나라를 거치면서 많은 의가들의 의서에서 도창법의 의의와 응용범위, 霞天膏의 제조법 등을 언급하였다. 이들은 朱震亨을 종주로 삼는 ‘丹溪學派’에 속하는 의사들이 대부분이다.
3. 한국에서도 도창법을 활용한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다. 조선 초기부터 해방이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적에서 도창법의 의미와 활용법 등을 언급하고 있다.
4. 『東醫寶鑑』에서는 도창법을 사용하여 담으로 인하여 생긴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그런데, 치료과정이 환자의 원기를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거나 환자가 허손된 상태가 심하다면 瀉하는 가운데 補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5. 도창법을 통하여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는 心痛, 脚氣, 小便濁, 遺精, 咳嗽, 咯血 등 고의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질병뿐 아니라 비만, 고혈압, 당뇨 등 현대인들에게 다발하는 대사성질환에도 응용할 수 있다.
6. 도창법을 응용한 디톡스요법은 상당량의 체중 감소와 체내의 많은 담음으로 인하여 생겨난 다양한 증상들을 제거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은 힘들이지 않고 비만치료와 대사성질환을 치료할 수 있기에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참고문헌

1. 『東洋醫學大辭典』. 서울. 경희대학교출판국. 1999.
2. 許浚. 『東醫寶鑑』. 서울. 남산당. 1991.
3. 陳大舜외 2인 編著. 맹웅재 외 9인 번역. 『各家學說』. 서울. 대성문화사. 2001.

26) 활석 1.7돈, 감초 1.2돈, 연교 1돈, 석고 황금 길경 각 7푼, 방풍 천궁 당귀 적작약 대황 마황 박하 각 5푼, 형개 백출 산치자 각 3푼반, 생강 1돈반.

27) 황기 1.5돈, 인삼 백출 당귀신 진피 감초 광화 백편두 각 1돈, 승마 시호 황백(蜜炙) 각 3푼, 홍화 2푼.

4. 알레한드로 용거 지음, 조진경 옮김. 『클린』. 서울. 쌤앤파커스. 서울. 2010.
5. 『金元四大家醫學全書』. 天津科學技術出版社. 天津. 1996.
6. 소진백. 『東醫寶鑑』에 보이는 丹溪痰飲論의 의학적 고찰.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7. 김의태. 『東醫寶鑑』에 인용된 張從正의 醫論研究. 韓國醫史學會誌. 2001. 14(1).
8. 朱震亨. 『丹溪醫集』. 人民衛生出版社. 1995.
9. 方廣. 『丹溪心法附餘』. 大星文化社. 1990.
10. 虞搏. 『醫學正傳』. 成輔社. 1986.
11. 『劉純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北京. 1999.
12. 『汪昂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北京. 1999.
13. 東醫科學院校閱. 『의방류취』. 여강 영인. 서울. 1994.
14. 楊禮壽. 『醫林撮要』. 韓國科學技術史資料大系. 麗江出版社. 1988.
15. 李景華. 『廣濟秘笈』. 여강 영인. 서울. 1994.
16. 李梴. 『醫學入門』. 南山堂. 1991.
17. 洪元植. 『中國醫學史』. 東洋醫學研究院. 1987.
18. 김남일 외 2인. 『한권으로 읽는 동의보감』. 서울. 들녘. 1999.
19. 河北醫學院 校釋. 『靈樞經校釋』. 人民衛生出版社. 1995.
20. 山東中醫學院外 校釋. 『黃帝內經素問校釋』. 人民衛生出版社. 1995.
21. 한의고전명저총서DB <<http://jisik.kiom.re.kr>>. 한국한의학연구원.